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한 기업의 재무제표의 주요계정에 나타난 변화와 시사점

신 현 걸\*  
임 태 군\*\*  
정 석 우\*\*\*  
한 형 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에 비해 재무제표 상의 주요계정금액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009년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한 12개 기업의 2007년과 2008년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주요계정금액과 2007년 및 2008년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보고된 주요계정금액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상태표 상에 나타나는 자산총계 및 부채총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그 금액이 크게 나타나고, 자본총계의 경우 작게 나타나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 영업손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크게 나타나며,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작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는 두 회계기준 간에 측정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변경이 재무제표 상의 주요계정금액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음을 보여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혼란없이 회계정보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회계정보를 이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도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결과를 이용한 회계학관련 실증연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주제어: 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 서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에 비해 주요계정금액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한 기업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회계기준의 변

경에 따라 주요계정금액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기업이 보고하는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 뿐만 아니라 회계학관련 연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업회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독립된 민간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을 1999년에 창설하여 국제수준에 맞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기

논문접수일: 2010. 02. 09.                      게재확정일: 2010. 08. 30.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경영정보학부(shinhg@konkuk.ac.kr),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부(taekyuni@chonbuk.ac.kr), 제1저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jeong@korea.ac.kr),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han1764@naver.com), 공동저자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어 외국투자자가 우리나라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세계적인 회계기준의 단일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외국투자자 등이 회계투명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국내 법규에 의한 재무제표를 미국이나 EU 등의 국제자본시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투자자에게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중심의 회계기준(rule-based standards)과는 달리 원칙중심의 회계기준(principle-based standards)으로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분류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재량적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재고자산의 경우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는 등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서와 상이하다.

회계기준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식·측정·보고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지 않거나, 보고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황인태 등(2008)은 2005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영국과 호주기업의 비교목적으로 제시된 2004년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자산, 부채, 그리고 당기순이익 등에 차이가 발생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여은정 등(2007)은 독일, 영국, 그리고 홍콩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이익의 질을 개선시키며, 재무제표상의 회계수치에도 차이가 있

음을 보고하였다.

회계기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회계수치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회계정보이용자는 의도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회계수치를 이용하는 실증연구의 결과도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회계기준의 변경이 재무제표 상에 보고되는 계정금액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적용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른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회계기준의 변경이 재무제표 상에 보고되는 주요계정금액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2009년도에 12개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하여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회계기준의 변경이 기업들이 보고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상의 주요 계정금액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009년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12개 기업의 2009년도 반기보고서에서 비교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2007년과 2008년도의 주요계정금액과 2007년 및 2008년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보고된 주요계정금액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상태표 상에 나타나는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그 금액이 크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총계의 증가보다 부채총계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자본총계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그 금액이 적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또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 영업손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크게 나타나며,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작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결과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기업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두 회계기준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무제표 상에 보고되는 주요계정금액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갖는다. 먼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 상의 주요계정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각 계정의 인식 및 측정, 회계처리방법 등에 차이가 있지만, 재무제표 상의 주요계정금액에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킬 정도로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계정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2000년 이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해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가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기업이 보고하는 재무제표 상의 계정금액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 재무분석가 및 금융기관 등에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재무제표 상의 주요계정금액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의사결정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세 번

째로 회계정보를 이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도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결과를 이용한 회계학관련 실증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특징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의 주요차이를 검토하고, 이중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주요계정금액을 살펴본다. 제 III 장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표본과 연구방법을 기술하며, 제 IV 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 II.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서의 주요차이의 검토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서와 미국 회계기준 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소위 규정중심의 회계기준(rule-based standards)이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소위 원칙중심의 회계기준(principle-based standards)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등과 같은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양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도 일부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몇 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sup>1)</sup> 따라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문단 54 (재무상태표 필수표시항목)와 82 (포괄손익계산서 필수표시항목) 참조.

기업은 재량적으로 재무제표의 양식 및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 손익항목의 구분표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어 현행기업회계기준에서 제공되는 일부 계정과목 및 항목의 경우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sup>2)</sup>

또한 국제회계기준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회계기준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식·측정·보고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지 않거나, 보고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황인태 등(2008)은 2005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영국과 호주의 비교목적으로 제시된 2004년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영국과 호주의 회계기준에 비해 주요계정금액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산의 경우 유형자산과 유동자산은 감소하지만 무형자산과 기타고정자산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총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유동부채는 감소하지만 비유동부채가 증가하여 부채총계의 증가가 나타나며, 당기순이익 등의 손익항목도 증가하지만, 자본의 경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여은정 등(2007)은 독일과 영국, 그리고 홍콩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이익의 질 및 재무제표상의 회계수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영국과 홍콩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나 이익의 질이 개선됨을 보고

하였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재량적발생액, 총발생액비율, 총자산수익률, 현금흐름비율,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변수들이 개선됨을 보고하여 회계기준의 변경이 재무제표의 계정금액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계정의 인식 및 측정, 회계처리방법의 차이로 인해 재무제표 상에 보고되는 각종 계정의 금액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재무제표 상의 계정 및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 2.1 재고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아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던 기업의 경우 재고자산의 취득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재무상대표의 보고기간 말 재고자산은 증가하고,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는 감소하여 매출총이익의 증가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2.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어,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할 경우 총자산 및 자기자본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증가가 나타나게 된다.

2) (Appendix)에 제시되어 있는 조기도입기업의 재무상대표와 손익계산서 참조.

3) 재무상대표에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 중 본 절에서 기술하지 않은 항목은 지분법 적용대상투자자산, 생물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 및 부채,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 등이다. 이들 항목은 국제회계기준으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측정상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비교분석에서는 항목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 포함시켰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인한 손익계산서 상의 경영성과 항목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2.3 차입원가와 손상차손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 여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화하는 회계처리만 인정하므로,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던 기업의 경우 총자산의 증가와 차입원가의 발생연도에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금융원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큰 경우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으며, 개별 자산별로 현금유입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손익금액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2.4 투자부동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인해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상각대상 투자부동산의 경우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아 손익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2.5 금융상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회계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여 성과를 평가·보고하는 경우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금융자산·부채 중 일부에 대해서 기업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게 되면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취득원가를 한도로 환입할 수 있는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손상차손환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손익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2.6 종업원급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청산가치 개념에 기초하여 결산일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추계액을 부채로 인식하게 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적가정을 적용한 미래에 지급할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로 부채를 인식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차이 이외에도 총당부채 및 수익의 인식, 정부보조금, 건설계약, 환율변동효과 등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다. 이처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특정 거래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를 허용하므로, 현행 규정중심의 회계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정보를 이용하던 회계정보이용자의 경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회계기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회계수치의 차이를 정확

히 알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회계정보이용자는 의도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회계기준의 변경이 재무제표 상에 보고되는 주요계정금액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의 부재는 회계수치를 이용한 실증연구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이용하기 힘들게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기업들이 보고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상의 주요계정금액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한다.

### III. 표본 및 연구방법

2009년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기업들은 2009년도 반기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2007년과 2008년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의 재무자료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이에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회계기준의 변경이 재무제표 상의 주요계정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

에 의해 작성된 2007년과 2008년도의 재무제표 자료를 한국신용평가정보(주)가 제공하는 Kis-ValueIII에서 추출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2007년과 2008년의 재무제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기업의 2009년도 반기사업보고서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였다.

2009년 6월을 기준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은 12개로, 시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이 7개, 코스닥시장이 5개 기업으로 거래시장별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수를 고려할 때 코스닥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유가증권시장의 기업들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보다 활발하게 조기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대분류를 사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기업의 산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12개 기업 중 9개로, 다른 산업에 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상대적으로 조기에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빨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의 시장별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1. STX펜오션(운수업) 2. KT&G(제조업) 3. 풀무원홀딩스(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 풀무원 <sup>4)</sup> (음식료품제조) 5. 이건산업(제조업) 6. 코스모화학(제조업) 7. 영진약품공업(제조업)	1. 인선이엔티(하수,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 디스플레이테크(제조업) 3. 다스텍(제조업) 4. 한국큐빅(제조업) 5. 지코엔투티즈(제조업)

4) (주)풀무원의 경우 2009년 4월 13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으나, 기타법인으로 분류되어 2009년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공표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회계기준 비교기간인 2007년과 2008년도의 재무자료를 추출할 수 있어 분석에 포함시켰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sup>5)</su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동성배열법을 포함하여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이 두가지 방법의 혼합표시방법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경우 유동성이 작은 항목을 먼저 배열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기업들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본 결과, 조기도입한 기업 중 5개 기업은 현행의 유동성배열법을 사용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기업은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자본, 비유동부채, 유동부채의 순으로 재무상태표를 표시하여 유동성배열법 대신에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계산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기능별 분류방법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능별 분류방법과 성격별 분류방법 두 가지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수익 및 비용, 영업손익 등을 구분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중단사업손익의 구분을 손익계산서 상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기업들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살펴본 결과 성격별로 수익과 비용을 구분표시하여 작성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었고 모두 기능식으로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기타포괄손익이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의 표시방법과 유사하게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변경이 재무제표 상의 주요계정금액

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 및 전제기간에 걸쳐 주요계정금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을 이용하는 경우의 계정금액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의 계정금액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Wilcoxon rank sum test를 실시하였다. t-test의 t값과 Wilcoxon rank sum test의 Z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면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주요계정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 IV. 실증분석결과

〈표 2〉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상의 주요계정 및 항목금액을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유동자산의 구성항목인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사이에 이들 항목의 인식과 측정의 방법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그 금액이 크게 나타나며, 자산총계의 경우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유의하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크게 나타났다.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수취채권, 재고자산 등으로 구성되는 유동자산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5) 기업회계기준서 제 21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그 금액이 크게 나타난 것은 영국과 호주의 경우 유동자산이 감소한다는 황인태 등(2008)의 연구결과와 다르다. 이는 우리나라와 영국 및 호주의 국제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sup>6)</sup>

부채의 경우 비유동부채, 퇴직급여부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유동부채 및 부채총계는 높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본의 경우 자본금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자본잉여금 및 자본총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작게 나타난다.

요약하면 주요계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자산과 부채계정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자본은 작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주요계정금액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표본수가 작아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2〉의 재무제표 상의 주요계정 및 항목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회계기준제정의 역할이 독립적인 민간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sup>7)</sup> 회계기준위원회로 위탁되어 동 위원회가 2003년 12월 4일 공표한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서문에 제시한 것처럼 국제적 정합성이 높은 회계처리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가 많이 해소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 및 금융기관 및 재무분석가 등의 가치평가에 있어 기존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정도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기업들 중 대부분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인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을 2009년 반기와 비교하여 2008년 반기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손익계산서 상의 항목들은 비교를 위해 2008년 반기의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을 사용하였다.

〈표 3〉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손익계산서 상의 주요항목의 2008년도 반기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sup>8)</sup> 이를 살펴보면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 그리고 영업손익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금액이 크게 나타나며,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당기순손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비용은 18개 회사/년 중 11개 회사/년에서 구분표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에는 9개 회사가 표시하여 점차 더 많은 회사들이 금융비용을 구분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의 손익계산서 상의 주요항목금액의 차이는 t-test와 Wilcoxon rank sum test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도 재무상태표 상의 주요계정들과 유사하게 회계기준에 따른

6) 황인태 등(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영국 및 호주의 회계기준은 영업권, 외화환산손익,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사하나, 연구개발비, 주식기준보상, 파생상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연법인세 등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이미 반영한데 반해, 영국 및 호주의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영국 및 호주의 회계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분석결과의 직접적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다.

7) 2006년 6월 현재의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8) 영업손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다른 손익계산서 항목에 비해 표본수가 적은 이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을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이 재량적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 손익항목의 구분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한 기업의 기업회계기준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의 재무제표 상 주요계정과목별 차이의 비교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회계 기준	표본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t값 (유의확률)	Z값 (유의확률)
현금및 현금성자산	IFRS	12	50,826	6,283	129,622	455,122	202	0.000 (1.000)	-0.087 (0.931)
	GAAP	12	50,826	6,283	129,622	455,122	202		
단기금융 상품	IFRS	3	4,313	5,440	2,004	5,500	2,000	0.000 (1.000)	0.000 (1.000)
	GAAP	3	4,313	5,440	2,004	5,500	2,000		
유동자산	IFRS	14	295,323	41,672	644,105	1,981,887	5,230	0.102 (0.920)	0.023 (0.982)
	GAAP	14	271,548	42,225	592,771	1,710,974	5,230		
비유동 자산	IFRS	14	480,094	155,411	935,233	2,722,141	9,564	0.006 (0.995)	0.069 (0.945)
	GAAP	14	477,966	108,743	941,880	2,711,461	9,158		
유형자산	IFRS	15	314,984	44,065	691,947	2,531,375	5,060	0.012 (0.990)	0.083 (0.934)
	GAAP	15	311,912	38,311	689,293	2,454,018	5,693		
무형자산	IFRS	14	6,342	1,226	12,877	41,260	28	0.648 (0.526)	-0.023 (0.982)
	GAAP	14	3,923	1,319	5,416	16,021	25		
자산총계	IFRS	18	619,341	150,867	1,409,513	4,613,384	3,833	0.045 (0.965)	0.079 (0.937)
	GAAP	18	598,701	135,731	1,372,039	4,382,573	3,833		
유동부채	IFRS	15	160,619	40,481	294,779	1,003,986	1,830	0.278 (0.783)	0.166 (0.868)
	GAAP	15	133,742	39,362	230,212	731,983	1,830		
비유동 부채	IFRS	14	95,001	21,436	235,740	900,542	201	-0.017 (0.986)	0.115 (0.909)
	GAAP	14	96,559	14,547	237,950	902,606	171		
퇴직급여 부채	IFRS	9	3,113	1,915	2,906	7,738	131	-0.124 (0.903)	-0.177 (0.860)
	GAAP	9	3,289	1,743	3,122	8,389	192		
부채총계	IFRS	18	214,613	68,019	439,759	1,619,301	310	0.148 (0.883)	0.206 (0.837)
	GAAP	18	193,608	58,188	408,597	1,634,589	310		
자본금	IFRS	18	82,151	16,400	222,978	954,959	3,000	0.000 (1.000)	-0.016 (0.987)
	GAAP	18	82,151	16,400	222,978	954,959	3,000		
자본 잉여금	IFRS	15	72,989	23,821	167,968	673,140	337	-0.512 (0.613)	-0.664 (0.507)
	GAAP	15	106,982	32,895	194,636	673,974	5,690		
자본총계	IFRS	18	404,728	55,050	986,717	3,454,426	3,523	-0.001 (0.999)	-0.111 (0.912)
	GAAP	18	405,092	54,397	999,604	3,539,830	3,523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4〉는 주요계정과목별 변동분포를 나타낸다. 〈표 2〉와 〈표 3〉에서 비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한 경우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 주요계정과목의 금액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금액이 증가하는 기업과 감소하는

〈표 3〉 2008년도 2분기 손익계산서 상의 주요계정과목별 비교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회계 기준	표본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t값 (유의확률)	Z값 (유의확률)
매출액	IFRS	10	616,501	113,120	1,314,305	4,207,194	2,241	0.029 (0.978)	0.113 (0.910)
	GAAP	10	599,608	66,274	1,329,005	4,224,353	2,241		
매출 총이익	IFRS	10	138,765	9,504	269,346	772,267	426	0.003 (0.998)	0.038 (0.970)
	GAAP	10	138,436	9,442	268,780	774,959	426		
영업손익	IFRS	8	121,565	4,807	217,763	490,280	-3,719	0.056 (0.956)	0.368 (0.713)
	GAAP	8	115,600	4,455	209,200	470,354	-3,106		
법인세차감 전순손익	IFRS	6	88,565	602	230,126	557,670	-27,546	-0.030 (0.977)	0.000 (1.000)
	GAAP	6	92,575	542	230,558	563,098	-7,568		
당기 순손익	IFRS	10	81,751	1,518	173,516	422,732	-16,614	-0.067 (0.947)	0.113 (0.910)
	GAAP	10	87,121	435	182,616	446,476	-6,208		

기업의 분포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계정과목별 증감 변동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계정과목이 10%이내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 2〉와 〈표 3〉의 결과가 특정기업에 의해 유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산과 부채총계의 변화는 각각 79%와 72%의 기업이 10%이내에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그 변화가 크지 않았다.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 과목은 무형자산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형자산의 측정방법이 변화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10%이상 감소한 회사가 6개(42.9%), 10% 이상 증가한 회사가 5개(35.7%)로 78.6%에 해당하는 회사가 무형자산이 1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0%이상 증가한 회사수와 감소한 회사수가 비슷하여 〈표 2〉의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무형자산에 큰 변화를 보고한 기업들을 살펴본 결과 영진약품, 코스모화학, STX팬오션, (주)KT&G,

(주)풀무원으로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STX팬오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조업에 속하였다. 이러한 〈표 4〉의 결과는 〈표 3〉의 결과만으로 해당계정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앞으로 기업별로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에서 무형자산의 변화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5〉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기업의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의 재무비율 차이를 보여준다. 재무제표항목의 금액변화는 재무비율로 환산되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이용되기 때문에 재무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재무비율을 다른 나라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황인태 등(2008)에서 이용한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을 이용하였다.<sup>9)</sup> 황인태 등(2008)은 유동비율과 총자산순이익률은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부채비율과 매출액순이익률은 다소

9)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은 부채/총자산, 고정장기적합률은 비유동자산/(자기자본+비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매출액, 총자산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총자산,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총자산으로 계산하였다.

〈표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한 기업의 기업회계기준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의 주요계정과목 변동률 분포

계정과목	감소		불변	증가		합계
	10%이상	10%이내		10%이내	10%이상	
현금및현금성자산	0	8	0	4	0	12
	0.0%	66.7%	0.0%	33.3%	0.0%	100.0%
단기금융상품	1	2	0	0	0	3
	33.3%	66.7%	0.0%	0.0%	0.0%	100.0%
유동자산	0	7	0	4	3	14
	0.0%	50.0%	0.0%	28.6%	21.4%	100.0%
비유동자산	3	4	0	5	2	
	21.4%	28.6%	0.0%	35.7%	14.3%	100.0%
유형자산	4	5	0	3	3	15
	26.7%	33.3%	0.0%	20.0%	20.0%	100.0%
무형자산	6	2	0	1	5	14
	42.9%	14.3%	0.0%	7.1%	35.7%	100.0%
자산총계	1	5	0	10	2	18
	5.6%	237.8%	0.0%	55.6%	11.1%	100.0%
유동부채	0	5	0	6	4	15
	0.0%	33.3%	0.0%	40.0%	26.7%	100.0%
비유동부채	3	3	0	4	4	14
	21.4%	21.4%	0.0%	28.6%	28.6%	100.0%
퇴직급여부채	4	2	0	2	1	9
	44.4%	22.2%	0.0%	22.2%	11.1%	100.0%
부채총계	0	5	0	8	5	18
	0.0%	27.8%	0.0%	44.4%	27.8%	100.0%
자본금	0	3	14	1	0	18
	0.0%	16.7%	77.8%	5.6%	0.0%	100.0%
자본잉여금	3	6	0	6	0	15
	20.0%	40.0%	0.0%	40.0%	0.0%	100.0%
자본총계	3	8	0	5	2	18
	16.7%	44.4%	0.0%	27.8%	11.1%	100.0%
매출액	1	4	0	2	4	11
	9.1	36.4%	0.0%	18.2%	36.3	100.0%
매출총이익	1	5	0	3	2	11
	9.1%	45.5%	0.0%	27.3%	18.2%	100.0%
영업손익	1	0	0	3	5	9
	11.1%	0.0%	0.0%	33.3%	55.6%	100.0%
법인세차감전순손익	1	1	0	2	3	7
	14.3%	14.3%	0.0%	28.6%	42.9%	100.0%
당기순손익	2	1	0	4	4	11
	18.2%	9.1%	0.0%	36.4%	36.4%	100.0%

〈표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한 기업의 기업회계기준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의 재무비율 차이비교

재무비율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t값	Z값
유동비율	IFRS	1.78	1.91	0.16	8.08	-0.11	-0.16
	GAAP	1.86	2.11	0.16	8.80		
부채비율	IFRS	0.42	0.17	0.11	0.76	0.24	0.02
	GAAP	0.40	0.17	0.11	0.70		
고정장기적합률	IFRS	0.96	0.25	0.64	1.39	-0.05	-0.07
	GAAP	0.96	0.22	0.66	1.33		
매출액순이익률	IFRS	0.01	0.20	-0.41	0.34	-0.70	0.22
	GAAP	-0.05	0.12	-0.12	0.33		
총자산순이익률	IFRS	0.02	0.06	-0.09	0.09	-0.64	0.40
	GAAP	0.03	0.04	-0.02	0.10		
총자산회전율	IFRS	0.59	0.51	0.09	2.00	0.85	-0.64
	GAAP	0.44	0.30	0.14	0.97		

증가할 것으로, 고정장기적합률과 총자산회전율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자산회전율에서만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고 나머지 다섯 개의 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호주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표 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주요계정과목금액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 V. 결론 및 공헌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이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에 비해 주요계정금액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한 기업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재무상태표 상에 나타나는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그 금액이 크게 나타나며, 자산총계의 증가보다 부채총계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자본총계의 경우 그 금액이 적게 나타났다. 손익계산서 상의 주요항목의 경우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 영업손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크게 나타나며,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작게 나타났다. 재무비율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있는 항목의 경우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 두 회계기준 간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경이 재무제표 상에 보고되는 주요계정금액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음을 보여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갖는다. 먼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국

회계기준의 각 계정의 인식 및 측정, 회계처리방법 등에 차이가 있지만, 재무제표 상의 주요계정금액에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킬 정도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점이다.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주요계정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회계기준원의 2000년 이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해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가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재무제표 상의 주요계정금액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정보를 이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도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결과를 이용한 회계학관련 실증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전면도입되기 이전에 조기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기준의 변경이 주요계정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화된 연구결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회계기간 말에 이루어지는 재평가모형의 적용이나 손상차손, 종업원급여의 확정급여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아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주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전면도입된 이후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재무제표 상의 주요계정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여은정 · 고윤성 · 김지홍(200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IFRS 도입국(독일, 영국,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19, 175-201.
- 한국회계기준원(2003), 재무회계개념체계.
- 한국회계기준원(200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황인태 · 한봉희 · 강선민(2008),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Appendix〉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의 비교표시 재무제표

XI. 부속명세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정보를 제시하였고, 'XI. 부속명세서'에 제시된 것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이견산업의 별도재무제표 및 주식입니다.

1. K-IFRS 별도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38 기 1분기 2009년 3월 31일 현재

제 37 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이견산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8(당)기 1분기	제 37(전) 기
자산			
I.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11	113,885,969,542	114,602,951,444
무형자산	12	923,751,068	871,368,107
기타투자자산	13	27,361,774,502	27,777,391,663
기타비유동자산	14	809,373,422	824,873,422
비유동자산 계		142,980,868,534	144,076,584,636
II. 유동자산			
재고자산	16	61,843,300,406	59,335,062,155
매출채권	17	67,038,669,723	71,668,162,444
기타유동자산	15	36,016,240,195	31,490,569,617
현금및현금성자산	18	562,551,626	2,999,648,583
유동자산 계		165,460,761,950	165,493,442,799
III.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	13,906,215,332	13,786,415,332
자산총계		322,347,845,816	323,356,442,767
자본			
I. 자본금	19	37,201,680,000	37,201,680,000

II. 자본잉여금	19	192,149,646	72,378,617,284
III. 자기주식	27	(638,802,931)	(4,829,225,984)
IV. 이익잉여금		(7,767,802,563)	(78,528,790,764)
V. 기타포괄손익		51,747,109,067	51,747,109,067
자본총계		80,734,333,219	77,969,389,603
부채			
I. 비유동부채			
사채	21	2,140,346,000	2,093,439,808
장기차입금	21	9,629,240,000	9,629,240,000
확정급여채무	22	5,462,423,962	5,904,285,243
이연법인세부채		4,557,325,779	6,204,325,818
판매보증충당부채	23	427,505,019	427,505,019
기타비유동부채	25	70,000,000	50,000,000
비유동부채 계		22,286,840,760	24,308,795,888
II. 유동부채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24	16,169,987,995	19,068,600,782
단기차입금	21	188,851,249,392	190,460,473,686
유동성장기부채	21	1,577,364,920	2,077,364,920
기타유동부채	26	12,728,069,530	9,471,817,888
유동부채 계		219,326,671,837	221,078,257,276
부채총계		241,613,512,597	245,387,053,164
부채 및 자본 총계		322,347,845,816	323,356,442,767

나.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38 기 1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제 37 기 1분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이전산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8(당)기 1분기	제 37(전)기 1분기
I. 당기순이익(손실):			
수익	6	38,871,596,968	38,808,718,656
매출원가		(33,665,884,385)	(35,687,386,203)
매출총이익		5,205,712,583	3,121,332,453
기타수익	7	4,074,099,225	807,914,150
판매비	9	(772,621,842)	(491,455,459)
관리비	9	(3,018,823,902)	(2,538,228,289)
연구개발비		(79,312,149)	(77,313,455)
기타비용	8	(10,578,993,387)	(3,831,385,060)
금융수익	10	9,087,416,849	1,156,090,692
금융비용	10	(5,173,131,353)	(2,304,011,172)
법인세차감전 손실		(1,255,653,976)	(4,157,056,140)
법인세수익(비용)		1,560,605,202	(29,898,390)
당기순이익(손실)		304,951,226	(4,186,954,530)
II.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22	(48,559,056)	(38,881,374)
기타포괄손익관련 법인세효과	22	19,563,857	-
법인세 차감후 기타포괄손익		(28,995,199)	(38,881,374)
III. 총 포괄손익		275,956,027	(4,225,835,904)
IV.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43	(777)

## Implication from the Changes of the Major Account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ies which adopted the K-IFRS early

Hyun Geol Shin\* · Tae Kyun Lim\*\* · Seok Woo Jeong\*\*\* · Hyung Sung Han\*\*\*\*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major account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by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and those by the K-GAAP, as the Korea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were changed to the K-IFRS. For analysis, this study compares the major accounts amount in 2007 or 2008 made pursuant to the K-IFRS and that in 2007 and 2008 made pursuant to the K-GAAP of the twelve companies which adopted the K-IFRS in 2009.

The analysis shows that total assets and total liabilities were increased but total stockholder's equity were decreased on the balance sheets when the K-IFRS were applied than when K-GAAP were applied. In addition, sales, gross profit and operating income were increased but income and loss before income taxes and net income were decreased on the income statements when the K-IFRS were applied than when the K-GAAP were applied. But th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any case. This suggests that there might be no real differences between two accounting standards.

This study helps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make reasonable decision using accounting information under K-IFRS by showing that adoption of the K-IFRS does not change the major accounts amount on the financial statements. In addition, since this study shows that change of accounting standards might not bring significant differences, this study would be useful for empirical research which uses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n accounting.

Key Words: financial statements, the K-GAAP,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

\* Professor, Konkuk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 Assistant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 Professor,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 Lecturer,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